

믿음의 본질

The Object and Acts of Justifying Faith

■ 제 2 장 자비의 하나님(230215)

1. 믿음의 원천

- 1.1. 구약 성경의 두 기둥: 야긴()과 보아스() (왕상 7:21) <사진>
 - 1.1.1. 보아스: "그에게 능력이 있다"—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
 - 1.1.2. 야긴: "그가 세우시리라"—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
 - A. 하나님의 본체 혹은 위격(Person)으로부터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발현
 - B. 이러한 본체의 외적 발현을 본질(Essence) 혹은 본성이라고 부름
 - C. 마치 태양에서 뜨거운 열기와 빛을 뿜어내듯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의 본성이 솟구침
- 1.2. 하나님의 자비의 두 가지 요소:
 - 1.2.1.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의 본성, 곧 자비를 맛보게 됨(마 5:43-45)
 - 1.2.2. ()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음(벧후 2:4)
 - 1.2.3.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본성과 ()가 결합될 때 경험하게 됨
- 1.3.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영광스럽게 선포된 본문: 출 34:6-7

2.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

- 2.1.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심(출 34:5)
 - 2.1.1.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() 사건
 - A.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본성 중 죄악을 향한 뜨거운 ()가 발산(출 32:10)
 - B.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() (출 32:12) → 그리스도의 모형
 - C.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(출 32:14)
 - 2.1.2. 그리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강림하심
 - 2.1.3.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담아주심
- 2.2.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선포(출 34:6)
 - 2.2.1.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세의 말이라고 이해
 - 2.2.2.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심 → 그분의 위대한 설교
 - 2.2.3. "나는 ()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!"
- 2.3.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의 ()
 - 2.3.1. 하나님의 성품이 다섯 가지로 묘사: 자비, 은혜, 인내, 인자, 진실
 - 2.3.2. 하나님의 본성을 묘사하는 일련의 성품 가운데 선두
 - 2.3.3. 하나님의 여러 성품의 발현을 이끄는 기관차
 - 2.3.4.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자비의 본성은 피조물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음

3.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: 자비 사용설명서

- 3.1.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지(출 33:19)
 - 3.1.1. 모세와의 친밀한 대화(출 33:11): 진노 → 중재 → 용서

3.1.2. 날이 새자마자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심(출 34:2)

A.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긍휼을 바라는 우리의 의지보다 앞섬

B. 이미 용서하시고 모세를 맞이하려 하심 → 탕자의 비유 속 ()

C.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심 → 언제라도 그분께 나오면 용서해 주심

3.2. 모세의 즉각적인 수용과 경배(출 34:8)

3.2.1.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경배

3.2.2. 구체적으로는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

3.2.3.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함

3.3. 하나님의 자비를 극단까지 추구함

3.3.1. 하나님의 자비의 선언은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용서

3.3.2.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감 → “우리와 ()하옵소서!”(출 34:9)

3.3.3. 이러한 담대함의 근거 → 천대에 이르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(출 34:7)

3.3.4. 하나님의 답변: “내가 친히 가리라!”(출 33:13-14)